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과 한옥 건축 기준

김태식
전라남도청 행복마을과 사무관

한옥 건축과 농어촌마을 가꾸기

전라남도는 특수시책인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타 지자체의 유사사업과 차별화하고, 대외적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8년 12월 10일 전라남도의 고유 브랜드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였다.

전라남도는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소득이 낮은 이유로 이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1970년 인구 331만 명에서 1990년 250만 명, 2012년 193만 명으로 매년 3만 3,000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8.6%로 전국 1위다.*

이로 인해 농어촌 존립 기반이 무너지면서 10~20년 후에는 사라질 마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도차원에서 농어촌의 붕괴를 막고 ‘사람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한옥을 건립하고, 마을을 조성하게 됐다. 이를 통해 낙후된 농어촌마을에 한옥을 신축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을로 변화시키고, 현 거주민은 물론 도시민까지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끄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농어촌마을 가꾸기 사업의 하나다.



사람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마을만들기



*
전국의 노인 인구 평균 비율은 11.2%다.

1.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

행복마을사업을 통해 전라남도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 9월 현재 1,850동의 한옥 건립을 추진했다. 그중 962동은 완공됐고, 883동은 건립 중에 있다. 한옥 건축과 관련해 66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한옥 보조금은 건축주의 금전적 도움을 위한 제도로써 총 4,000만 원을 지붕 공사 후와 마감공사 후의 두 단계로 나눠 지급하고, 융자금 4,000만 원은 완공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한옥 완공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여 사업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도록 했다.

1,850동 한옥 건립 추진

연도별 한옥 건립 추이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마을 수	135(개)	5	16	23	22	24	34	11
한옥 건립 수	1,850(동)	105	220	333	321	302	280	289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조건으로는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 한하여 바닥면적 85㎡ 이상의 한옥을 신축할 경우 보조금 4,000만 원 이내(도 2,000만 원, 시·군 2,000만 원), 융자금 4,000만 원(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2%) 등 총 8,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마을경관 조성용도 등의 공공기반시설비로서 3억 원(도 1억 5,000만 원, 시·군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정** : 한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옥위원회 구성 및 역할, 한옥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를 2005년 12월 29일 제정한 후 2013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개정해 왔다.
- 한옥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한옥 신축·개축 및 수선 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옥발전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총 500억 원을 목표로 한다. 발전기금은 2013년 10월까지 438억 원을 조성됐으며, 그중 301억 원을 한옥 건축 희망자에게 융자·지원했다.
- 전담부서 행복마을과 신설** : 행복마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9월 전라남도청 행정지원국에 전담부서인 ‘행복마을과’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집중 관리토록 했다. 또한, 국가차원의 마을정비사업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원마을과 관련한 업무도 함께 추진·관리함으로써 관련 사업과 행복마을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이를 통해 행복마을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유도했다.

• **한옥 시공업체 지정제도 도입** : 2007년 행복마을사업 초기에는 건설업 면허 및 주택건설사업면허 기술자들이 한옥이란 특수성과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공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2010년부터는 한옥시공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과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지정업체 선정 기준은 도내 건설업 등록 및 한옥 관련기술자 2인 이상 보유 업체이며, 매년 기술능력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재지정함으로써 우수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2010년 59개 → 2011년 56개 → 2012년 28개 → 2013년 21개로 전체 지정업체 수는 줄었으나, 우수업체를 선별할 수 있게 됐다.

2.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유형

• **기존마을 정비형** : 자연부락인 기존마을에 10동 이상의 한옥을 건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마을 부지가 협소할 경우에는 인근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여 한옥을 건립할 수 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반시설비로 3억 원을 지원하며, 2013년 9월까지 총 79개 마을에 271억 원을 지원했다. 기존 마을 정비형의 경우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구례 오미 행복마을 ©전라남도청



담양 무월 행복마을 ©전라남도청

• **신규단지 조성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전원마을사업 지구 중 단지 내 전체 가구가 한옥을 건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을조성과 관련한 기반시설비는 가구 수(20~100가구)에 따라 국비 12억~36억 원이 차등 지원된다. 이 유형은 새롭게 계획적으로 조성된 마을로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잘 구축되고, 주변의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조성되는 지리적 이점과 특징이 있다. 이에 행복마을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여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 단, 최소 20동 이상의 한옥을 건립해야 한다.



나주 신광 행복마을 ©전라남도청



담양 유천 행복마을 ©전라남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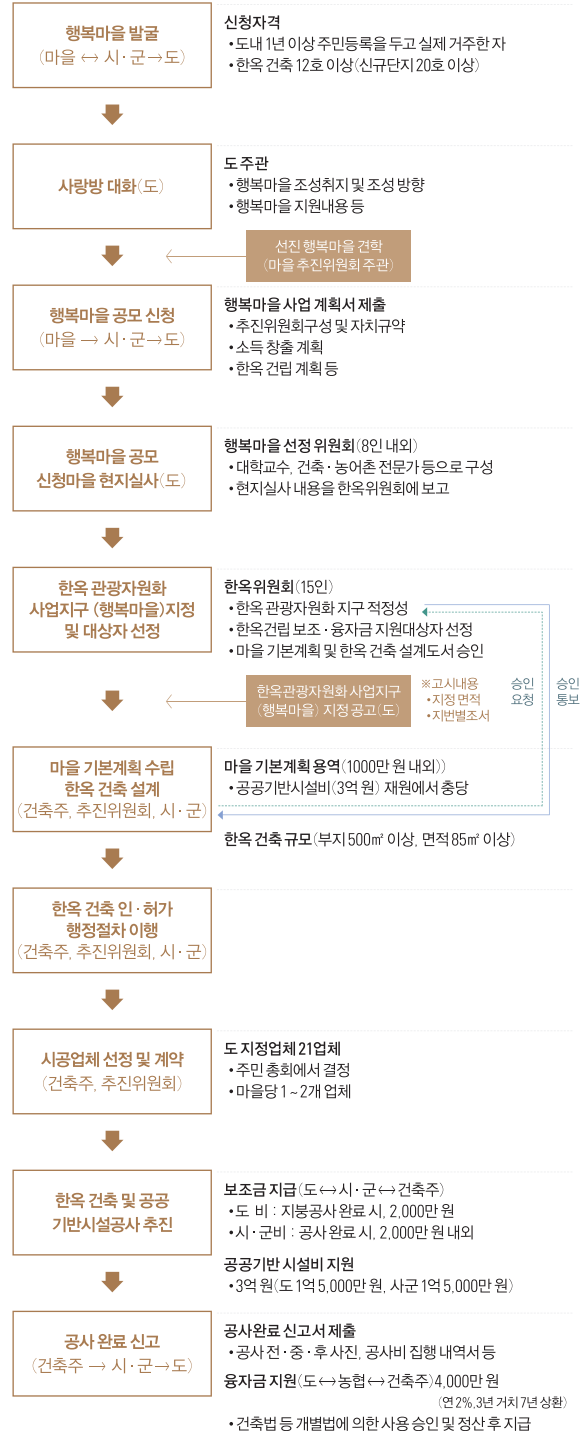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한옥 건축 기준

전라남도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주거문화를 선도하고자 한옥 고유의 전통미를 지키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한옥 보급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해 왔다. 생활한옥은 '전통한옥의 맛을 계승하며, 현대생활에 맞도록 편리성을 높이고, 최근 시대적 가치로서 웰빙(well-being) 및 치유(healing)를 담아낸 주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서울 북촌 및 전주한옥마을 등의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건축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기본 원칙은 친환경에 저촉되는 시멘트와 콘크리트 사용은 금지*하고, 나무와 황토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장실, 부엌, 욕실은 제외한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



* 준공 후 3년간 전매금지

부지 조성 및 배치

- 부지를 조성할 때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원 지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부지 면적은 가급적 500m(150평)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한옥의 배치는 자연채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남향으로 하며, 일조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 마을 안길은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설하고, 새로이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공용주차장을 개설하도록 한다.
- 부지를 조성할 때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은 피해 한옥을 배치하도록 한다.
- 강가와 바닷가 주변에 한옥마을을 조성할 경우 태풍 등의 강풍 피해에 대비하고, 방풍림을 조성하도록 한다.

평면 구성

- 외관은 한옥 고유의 전통 기법을 적용하며, 내부공간은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 한옥에 마루를 설치하도록 한다.(누마루, 툇마루, 쪽마루 등 선택)
- 전용 욕실(화장실)을 갖춘 손님방(guest room)을 반드시 계획하고, 이용의 편리를 위해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한다.
- 실내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락을 가급적 설치하도록 한다.
-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은 평면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특히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실 증축으로 인해 한옥 외관과 마을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기초 및 주초

- 독립기초나 줄기초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온통기초는 지양한다. 기초의 깊이는 충분한 지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60cm)에 설치한다.
- 자연석 기단을 권장하며, 황토(강회다짐) 및 돌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단의 높이는 마당보다 최소 30cm 높게 설치하고, 처마 빗물이 기단 바깥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 주초석 상단부(쇠시리)와 기둥 접합면은 기둥의 규격과 같게 하여 주초석과 기둥접합면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고인 빗물 등으로 인한 기둥의 훼손을 방지한다.

기둥·보·서까래

- 외부 기둥은 원형기둥이 노출되도록 시공하여 한옥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목재의 질감을 최대한 살린다.

- 기둥의 밑둥은 그랭이질 공법을 사용해 주초와 밀착되도록 하며, 소금·숯 등을 넣어 방충 및 방부효과를 극대화한다.
- 기둥, 보, 도리 등의 주요 골조 부재는 1개의 원목을 사용하도록 한다.

벽체

- 하인방 아랫부분 하방벽은 소성벽돌(한식벽돌)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습기를 흡수해 하인방을 부식시킬 우려가 있는 시멘트 벽돌 사용은 금지한다.



하방벽 시멘트 벽돌 사용(×) ©전라남도청



하방벽 소성벽돌 사용(○) ©전라남도청

- 벽체는 외위기 후 흙벽 마감 또는 황토벽돌(블록) 쌓기 등의 친환경 재료로 시공한다.
- 벽선 설치 시 기둥에 홈을 파서 목재가 물리도록 하고, 목재와 벽체 마감재의 연결 부위는 벌어짐이 없도록 홈파기나 목재 덧대기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벽체에는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한다.
- 내·외부 벽체 미장은 회벽이나 황토 모르타르 등의 친환경 재료로 마감하며, 황토 벽돌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사용은 금지한다.
- 내부에 벽지를 바를 경우 실내 공기질 저하를 막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접착제 사용은 지양하고, 밀가루 풀 등의 친환경 접착제를 사용한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벽체 시공법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한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벽체의 단열 성능 강화와 기밀성 확보를 위한 재료 및 시공법이 개발·발전돼 왔다.

사업 초창기의 벽체 시공방법

황토벽돌+단열재(스치로폼)+황토미장
왕겨숯 단열벽(외벽기) + 황토미장



황토벽돌 및 스티로폼 시공



외벽기 및 황토미장

성능이 향상된 벽체 시공방법

열반사 단열재 시공: 외부 습기 유입 및 공기층에 의한 외기 차단

- 황토미장(외부)+외벽기+열반사단열재+외벽기+황토미장(내부)

※ 열반사 단열재 : 발포 단열재 표면에 알루미늄 박지를 접착해 놓은 것으로 단열재 내부에 공기층이 함유된 제품(두께 6~13mm)



열반사 단열재 시공



친환경 짚 단열재 제작 시공: 짚을 이용해 가마니 형태의 단열재를 제작, 외기 차단 및 벽체 황토미장 시
접착력 강화

- 황토미장(외부)+외위기+짚 단열재+외위기+황토미장(내부)



짚 단열재 시공



왕겨 및 짚 단열재: 짚과 왕겨를 이용한 벽체 단열로 외기 차단 및 황토미장제 접착력 강화

- 황토미장(외부)+방습포+왕겨+짚+방습포+황토미장(내부)



방습포 시공



외벽 단열용 짚 및 왕겨

물 사용 공간 벽체 시공: 물을 쓰는 화장실과 부엌 등의 방수를 위해 시멘트 벽돌을 사용하고 거실
부분은 황토블록을 사용해 시멘트 성분 차단

- 방수 모르타르(화장실 내부)+시멘트 벽돌+황토블록+황토미장(거실 내부)



시멘트 벽돌과 황토블록 시공



시멘트 벽돌과 황토 뽐칠

바닥

- 방바닥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말고, 황토미장 바름 등의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
- 방바닥에는 단열재를 넣어 난방배관을 보호하도록 한다.
- 황토미장은 바탕면 만들기, 초벌, 중벌, 마감 미장 등의 4회 이상을 반복 시공함으로써 균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 바닥 미장 후에는 비닐장판 사용은 지양하고 한지 바닥재, 강화마루, 목재 등의 친환경재료로 마감하도록 한다.
- 방 1개(특히 손님방)에는 전통구들 방식의 온돌방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지붕

- 지붕은 전통 한식 토기와(암·수키와)의 사용을 권장하나, 시멘트 기와 시공도 가능하다. 단, 시멘트 기와의 경우 검은색 또는 장미색 등으로 도색한 기와를 사용해야 한다.
- 기와 공사 시 지붕의 단열 및 방수를 위해 보토 위에 강화다짐을 하고, 필요시에는 단열재를 설치한다.
- 태풍 등 강풍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용마루와 내림마루 적새기와는 3~5장으로 반영해 시공하고, 시공 시 동선을 이용해 결속한다.

단열 및 내부 습도조절 등을 위한 지붕 시공법

사업 초창기의 지붕 시공방법

목공사(개관)+부직포+적심재+보토(황토)+기와

습도 조절 및 단열 성능 강화를 위한 지붕 시공방법

목공사(개관)+부직포+왕겨 충전+방습필름+적심재+보토(황토)+기와

- 왕겨 충진으로 내부 습도 조절과 외부 열 차단 및 누수 방지 효과



방습포 설치 중 (내부 왕겨충진)



왕겨 충진 및 방습포 시공

- 도서지방(완도, 진도, 신안 등)에 시멘트 기와로 시공할 경우 바다 빛깔(청색) 및 회반죽(흰색)과 잘 어울리는 장미색 기와로 시공하여 특화된 한옥 경관을 연출하도록 한다. 특성화된 한옥 경관을 연출(바다의 청색과 회반죽 흰색이 기와 장미색과 어울림)

창호

- 출입문은 문턱이 없도록 시공한다.
- 현관문의 경우 전통 목재문 설치를 권장하며,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재와 유사한 색상의 문을 설치하도록 한다.
- 외부창의 경우 기밀성 유지를 위해 목재 이외의 다른 부재 사용도 가능하나, 목재창과 같은 색상으로 시공한다.
- 한옥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2중 창호를 설치하되, 바깥쪽에는 조망과 채광에 유리한 통유리 창호를 설치하고, 안쪽에는 격자무늬 및 창호지 창호를 시공한다.



한옥의 단열 성능과 조망·채광을 모두 고려한 현관문 설치 사례

전기·위생·난방 공사

- 전기 배관 공사시 난연 전선관을 사용하고, 스위치 및 콘센트 배관은 돌출되지 않게 벽속에 매입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한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전주에서 인입되는 배선은 가급적 지하 매설하도록 한다.
- 한옥의 아름다운 운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조명기구도 한옥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택하도록 한다.
- 화재에 취약한 주방 쪽은 방염 처리를 권장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한다. 특히 가스레인지 이용 시 가스 타이머 스위치 설치를 권장한다.

부속사, 담장, 대문, 마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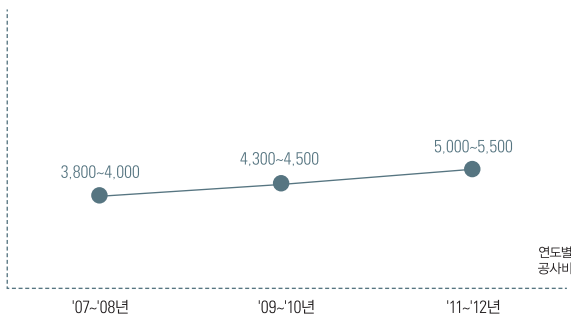
- 부속건물의 경우 본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해 구조 및 형태를 계획한다.
부득이하게 달걀집을 달아 낼 경우에는 전통한옥기법인 눈썹지붕구조를 채택하여 품격 있게 시공하도록 한다.
- 담장은 가급적 나무를 식재하여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자연석(돌담) 쌓기나 토담 위 기와 잇기 등의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 대문은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문양은 전통양식을 권장한다.
- 마당에는 한옥과 조화롭게 초목을 식재하여 정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시멘트 포장은 금지한다.
- 집 주변에는 구문초, 아래향 등의 방충효과(모기 퇴치 등)가 있는 식물 식재를 권장한다.
- 흰개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옥 부지 내에 있는 나무뿌리나 목재 조각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백리향 및 라벤더 등을 식재하도록 한다.
- 한옥 완공 후 민박사업자 신고를 위해 소방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한다.
 - 소방시설 :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 정화조설치 : 주택용도는 5인용으로 가능하나, 민박사업을 대비하여 10~15인용 권장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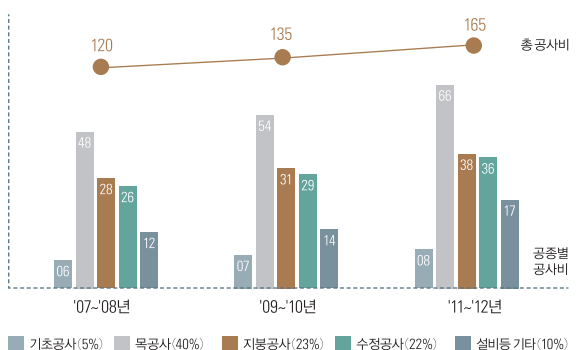
1. 건축주의 한옥 건립에 대한 인식 변화

행복마을사업 초창기에는 한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여 공사비용만을 절감하여 저렴하게 건축한 결과 단열 성능 취약, 새집 증후군 발생, 구조체 및 접합부 균열, 전체 한옥마을 경관 부조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건축주들 스스로 한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올바른 이해가 이뤄지면서

한옥 건축비 상승 추이 (3.3㎡기준, 천 원)



한옥 공사비 상승 추이 (100㎡기준, 백만 원)



2007년 3.3m²당 380만 원 정도 하던 공사비용이 2013년에는 550만 원 정도로 45%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2. 전통미는 살리고, 단열 성능은 높인 한옥

공사비용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조와 형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한옥의 멋을 살리기 위해 흙처마에서 겹처마로 시공하거나, 자연 풍광을 누릴 수 있는 누마루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또한 한옥 고유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전통 창호를 설치하고, 한지와 편백 수장재 등의 친환경 고급 자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전통 창호를 조명으로 이용한 사례 ©전라남도청



공기정화를 위해 숯을 벽체에 설치한 사례 ©전라남도청

이러한 전통적인 멋을 살리면서도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공법이 개발, 적용돼 왔다. 한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단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2중·3중 시스템 창호, 숯 단열재를 사용한 벽체, 황토벽돌, 황토블록 등을 개발, 시공하였다. 또한, 기와지붕은 경량화하면서 강풍에 의한 탈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마루 일체형, 암키와와 수키와가 서로 연결된 2~3m짜리 기왓장을 개발해 시공했다.



용마루 일체형 기와 개발 사례 ©전라남도청



암키와와 수키와가 연결된 기와 개발 사례 ©전라남도청

3. 한옥의 기능별 분동 및 특화

사업 초창기에는 ‘ㄱ’ 또는 ‘ㄴ’자형의 평면으로 창고·보일러실·손님방을 모두 한 동으로 공간을 구성했으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고 및 보일러실, 손님방의 경우 기능적으로 분동하여 건립하였다. 또한, 한옥 체협업으로써 민박의 특화를 위해 손님방에는 전통 난방방식으로 구들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또한 수납공간이 부족한 한옥의 단점을 극복하고, 한옥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되고, 대표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천장을 다락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일부분을 2층으로 건축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다락방 설치 사례 ©전라남도청



2층 한옥 건축 사례 ©전라남도청

4.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

2011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복마을 한옥과 아파트 및 일반 주택(양옥)의 공기질에 대해 비교 테스트한 결과, 행복마을 한옥은 정온성 및 항습성이 뛰어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의 유해물질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등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한옥은 정온성과 항습성이 뛰어나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한옥의 온도 및 습도에 대한 조사결과 외부 온도가 6~25℃일 때 한옥의 내부 온도는 15~20℃이며, 외부 습도가 28~94%일 때 내부 습도는 45~57%로 나타났다.

특히 새집증후군과 아토피피부염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는* 한옥이 19.6~29.6 $\mu\text{g}/\text{m}^3$ 로 비교군(群)인 일반 아파트(105.9 $\mu\text{g}/\text{m}^3$)나 양옥(44.1 $\mu\text{g}/\text{m}^3$)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옥은 호흡기와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500 $\mu\text{g}/\text{m}^3$)의

*
허용 기준치는 100 $\mu\text{g}/\text{m}^3$ 이다.

6분의 1 수준인 $86.8\mu\text{g}/\text{m}^3$ 으로 아파트($412.3\mu\text{g}/\text{m}^3$)와 양옥($155.7\mu\text{g}/\text{m}^3$)보다 낮게 나타났다. 체내에 축적되어 성장기 아동의 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체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중금속 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향후 한옥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7년여간 행복마을사업을 추진, 한옥의 신축·개축·수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만 한옥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많은 한계에 부딪혔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가령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고 및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금·융자금 지원제도에서 발전하여 한옥을 국가차원에서 진흥하고자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거문화임을 강조하여 한옥 건축 및 매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 등의 건축주(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보조적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초창기에 겪어 왔던 문제와 같이 한옥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증 제도와 우수한 품질의 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자재 인증제도,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자재 조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한옥에 대한 조기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 멀리 유럽에서는 각 나라의 전통건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전통건축을 접하며, 이에 대한 자긍심이 함양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전통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해 보존하려는 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적 시각으로 전통을 재해석하는 심미안이 형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전통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수성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한옥을 보존·계승하고자 하는 심성을 키우고, 한옥이 하나의 주거문화로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전문인력 양성
자격증 제도,
자재 인증제도 도입

전통건축 교육